

데스크 시각

지자체들의 살아남기



채 희 중 사회2부장

전남 지역 시·군 중에서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지자체는 어디일까? 물론 개인의 선호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완도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답은 간단하다. 잘 사니까.

주민 대부분이 양식업이나 관광산업에 종사해 개인 실질 소득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특산물인 전복 관련 산업 총생산액이 5000억 원이나 되며, 광어·해조류 생산액 2000억 원을 포함해 양식 산업 총생산액이 최소 7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관광자원도 풍부해 타 시도만에 비해 주민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편이다.

특히 양식업의 전망이 좋아 귀어(귀향) 인구도 꾸준히 탓에 인구 감소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이처럼 전통 인프라 산업이 강하다 보니 새로운 분야에 대해 눈을 돌

릴 필요도 없다. 전북 연구소와 해조류 연구소, 해양 생물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4개나 되는 까닭이다.

아이디어 산업화로 돌파구

순천과 여수 역시 산업단지는 기본이고 순천만이나 여수밤바다 등 빼어난 해양 관광자원으로 타 지자체의 시샘을 받는 편이다. 하지만 차별화된 전통 인프라 산업(도청 특산물)이나 관광 자원을 갖지 못한 여타 ‘흙수저’ 시·군들의 살아남기는 벅چ기만 하다. 인구는 매년 줄고, 그나마 남은 노동력도 고령화가 심한 데다 예산 확보도 갈수록 어렵기만 하다.

최근 몇 년 새 전남 지역 시·군들이 지역성(역사·전통문화)을 토대로 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스토리텔링을 사업으로 연계하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에 눈을 돌리고 있다. 장성의 ‘옐로우시티’(yellow city) 사업은 민선 6기 들어 전국에서 유례없는 컬러 마케팅으로 관광자원화에 성공한 사례다.

장성이 옐로우시티가 된 사연을 들어 보면 사실 아전인수를 넘어 억지(?)에 가깝다. 황룡강의 상징(황룡이 살았다는 전설)에서 힌트를 얻어 군 지역에 365일 노

란색 꽃이 피는 환경을 조성한 것. 아이디어가 관광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로, 올 상반기에만 523명이 귀농했다.

담양은 삼인산에서 이성계가 하늘에 제를 올린 뒤 왕이 됐다는 내용을 스토리텔링하는 등 산과 호수에서 유래한 설화를 묶어 관광자원화했다. 또한 기존 대나무 박람회를 국제 박람회로 키워 산업화를 꾀하고 있다. 보성도 제암산 임금바위에 소원을 빌면 자손이 번성한다는 설화를 이용해 제암산 자연휴양림을 포함 보성 차밭, 태백산맥문화관 등을 잇는 관광 코스로 재미를 보고 있다.

돈 버는 행정이 우선이다

영광은 자연 풍경을 상품화했다. 백수 해안도로를 따라 펼쳐지는 절경에 붉은 노을을 더해 ‘노을 관광 1번지’가 됐다. 바다 석양길에 해당화 꽃길, 해수온천랜드 등을 결연해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화순은 민선 6기 들어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운영해 외지 관광객 유치에 성공했으며, 나주는 목사골이라는 역사적 전통성을 살려 서울 북촌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 같은 읍성권 전통 한옥 마을 조성에 나섰다.

강진군은 군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

출을 위해 과감히 레저 시설을 유지했다. 가우도 정상에 청자타워를 세우고, 여기에 전국 최초의 해상 하강 체험시설인 쥘트랙을 설치한 것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운 경제 및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의 위기에 처한 군 단위 지자체는 생존에 대한 절박감이 있다”면서 “이제 행정이 단순 서비스를 벗어나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들의 주머니를 볼릴 수 있는 돈 버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들이 눈길을 끄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히 일부 시·군의 사업들은 예산 대비 생산성이 크게 떨어진다.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받는 곳도 더러 있다.

애초 물려받은 산업 인프라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은 전쟁에 가깝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어디에나 있는 붉은 노을을 관광상품으로 끼워 팔고, 온 마을을 노랗게 물들여 관광지로 만든 아이디어 반복에는 사업들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시골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산물 판매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한다. /chaee@kwangju.co.kr

社 說

남경필·김용태 탈당…새누리당 쪼개지나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22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함에 따라 보수 정당 최초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두 사람의 탈당이 당장 연쇄 탈당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이 여권의 대선주자와 당내 대표적 소장파라는 점에서 합의가 만만치 않다.

이번 주 5차 촛불집회 이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되면 찬반을 놓고 진박(진 박근혜) 지도부와 비박 진영이 정면충돌하면서 분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분당 된다면 보수 구심 세력으로서는 35년(1981년 1월 민주정의당 창당), 단일 정당으로서는 19년(1997년 11월 한나라당 창당) 만이다.

이에 대표 사퇴를 완강히 거부해 오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 ‘제로 그라운드에서 다시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통해 지도부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분당 사

태를 막아 보자는 의도로 입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심의 지지를 확보할 정치적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 진박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에 집권 여당으로서 공동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보수 정당으로서의 지지 기반 붕괴를 초래했다. 촛불 민심의 분노에 응답하기보다는 당내 기득권과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공당(公黨)이 아닌 사당(私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국정 농단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 체제 전환 등을 통한 통합보다는 과감한 ‘발전적 해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이 사회적 기득권과 지역주의·냉전구도 등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심에 응답하는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AI 비상…빈틈없는 방역 밖에 답이 없다

지난 16일 해남 산이면에서 시작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충북 음성을 거쳐 청주 그리고 다시 무안 등으로 서해안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나온 H5N6형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고병원성 AI바이러스이다. 방역 당국은 올 겨울 들어 처음 검출돼 그동안 국내에서 감염 사례가 없었던 만큼 농가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5N6형은 중국·베트남·라오스·홍콩 등지에서 유행한 바 있으며 인체 감염 사례는 2014년 4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5명이 감염돼 6명이 사망했다. H5N1이나 H7N9형에 비하면 이번에 발견된 H5N6형은 다행히 인체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세고 오리보다는 닭에 전염성이 강하다고 한다. 확진 판정이 나면 키우던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다.

전남도는 AI 발생 농가 3km 이내 농가가 키우던 닭·오리를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22개 시·군 전체에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100여 곳의 농가에서 닭과 오리 700여 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닭·오리 밀집 지역인 나주는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는 한 번 발병하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려면 빈틈없는 초동방역이 필요하다. 발병 지역 가금류 사육 축사 안팎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당국도 방역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AI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은편칼럼

카트만두대학교의 특별한 25주년 행사



박 행 순
네팔 카트만두대 객원교수
한국연구재단 월드프렌즈 과학기술지원단

1991년에 개교한 네팔 카트만두대학교는 올해에 25주년을 맞아 ‘Silver Jubilee’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3월 11일에 거행된 기념식에는 네팔 최초의 여성 대통령(Bidhya Devi Bhandari)과 총리가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본교 부총장은 환영사 도중에 감정이 복받쳐서 말을 잊지 못했고 옆 자리의 여교수는 전통의상인 사리 자락을 끌어당겨 눈물을 닦았다.

카트만두 대학의 설립이 구체화되던 1990년은 200여 년을 이어온 전제군주제의 ‘네팔왕국’이 입헌군주제로 바뀌고 2008년에는 국명이 ‘네팔연방민주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후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계속 끌어오던 새 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작년 10월이었다. 더구나

작년에는 7, 80년 주기의 대 지진으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도서관을 비롯하여 대학 건물들도 손상을 입었다. 카트만두대학교는 이렇듯 정치적 격변기와 자연재해를 겪으며 25주년을 맞게 되니 감회가 더욱 큰 듯하였다.

본교가 때로 사립대학으로 소개되지만 대학관계자들은 공립이라고 말한다. 초대 부총장 직을 맡았던 사르마 박사는 재정적 기반 없이 대학설립의 꿈과 의지만 가지고 출발했던 초창기에 받으려고만 하는 네팔 사회에서 땅을 내놓고 지역인사들이 기부금을 내서 인재육성을 위하여 본 대학을 설립한 것은 이 나라 정서에서 매우 독특하고 기이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행사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본부 건물과 강의동을 짓는 과정에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노르웨이의 건축가를 초청하여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하는 행사였다. 80여 세의 노인은 네팔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한 대학을 둘러보고 무척 감격하는 모습이 었다. 남의 호의에 대해 고마움을 별로 표현하지 않는 네팔 문화에서 대학 측의 이러한 배려는 이례적이어서 아주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세 번째는 인도 대통령(Shri Pranab

Mukherjee)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행사였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부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대통령 공적 소개, 교육부장관의 학위증 낭독, 총리가 학위 수여, 대통령의 수락 연설로 이어졌고 카트만두 대학의 교가 제창으로 사이 끝났다. 이는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공헌하는 것으로 보였다.

네 번째 행사는 11월 초에 시작된 3일간의 한국문화축제였다. 학생들은 네팔인이 주는 K-팝 댄스와 한국영화에 열광하였다. 카트만두에만 K-팝 동호인이 천명이 넘는다고 한다. 네팔인이 선보이는 태권도 시범, 한국음식, 연날리기, 스피치 대회 등으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결선 진출자들은 “한국여와 나의 미래”, “나에게 한국이란” 제목으로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와 애정, 품고 있는 꿈들이 놀라웠다.

마지막 날, 최용진 대사의‘공공외교 : 한국 정치경제문화 알리기’ 특강과 한국 유학 경험자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질문시간에 학생들은 “한국에 비해 네팔에는 무엇이 부족한가?”, “한국과 네팔 교 육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에 유학하

면 취업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등등 많은 질문들을 쏟아냈다. 질문들은 자신들의 내면 성찰보다는 모두 밖을 향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25주년의 기념비적 조형물을 세우기 위하여 연초부터 언덕을 깎아내고 땅을 돌우어서 기념탑을 세우는 큰 공사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조감도에 “미친 짓 중단하고 도서관에 책이나 더 넣으라”는 포스터가 붙었다가 며칠 후에 사라졌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그간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조감도보다 작은 규모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요즈음 같은 지식의 홍수, 디지털 시대에 도서관 장서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는 창의적 능력이다. 청년기에 접어든 카트만두 대학이 앞으로는 외적 성장과 함께 내면을 다지고 잠재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때이다. 학생들이 정지하게 시험을 치고 베끼거나 위기기보다 스스로 창의적 노력을 할 때, 네팔이 필요로 하는 많은 인재들이 본교를 통하여 배출될 것이다.

.....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 고

추억이 아름다운 이유



김 광 태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올 봄 필자는 케이불가를 타고 설악산 권금성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 권금성 정상에서 바라 본 울산바위는 그야말로 장관이다. 과거 울산바위를 오를 때마다 매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산행이었지만 세월이 지나 회상해 보니 고된 등산의 기억 대신 그때를 추억으로 더듬으며 행복해 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의 초등학교 때를 회상하며 ‘그때가 참 좋았지’ 하면서 과거를 추억으로 되뇌며 행복한 미소를 머금는다. 사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아이가 빨리 컸으면 하고 괴로웠는데도 말이다.

왜 지난 과거의 일은 대부분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되는 걸까? 우리는 부정확한 희미한 기억 정보로 과거의 일을 회상하고, 나머지는 미화시켜 왜곡된 상상으로 채우기 때문이다. 기억을 왜곡해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 자체는 불완전하다. 경험을 하는 시점부터 경험이 기억으로 저장되고, 이를 머릿속에서 다시 꺼내 회상할 때까지 기억의 프로세스에서 원본이 고스란히 보존되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할 때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곤 한다.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어 저장된 경험은 회상할 때도 의도에 따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의 재료를 선택해 이야기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기억 왜곡 전략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높여 행복해지고자 취하는 전략이다. 과거의 나, 즉 과거의 기억이 현재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이러한 자아 정체성이 행복의 밑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취사선택해서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의 오이시 시게히로 교수는 기억의 정확도와 행복의 상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커피를 모아 2주 동안 설문하며 당일 기분을 측정하고, 2주 후에 그날의 기분이 어땠었는지 다시 기억해보라고 요청했다. 당시의 기분과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며 답한 기분을 비교한 결과, 함께 보낸 시간이 즐거웠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시게히로 교수는 단순히 관계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기억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음에 주목했다. 실제 감정이 그렇지 않았어도 긍정적으로 왜곡된 기억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왜곡은 남녀 관계뿐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사람들은 ‘현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기억하는가’가 아니라, ‘현실을 얼마나 아름답게 기억하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불완전한 기억 덕분에 우리의 뇌가 기억을 조작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찾게 해준다. 그렇다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디지털 기기는 정 없는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이다. 너무 적나라한 현실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기억을 포장하는 것이다. 혹여 지금의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의 실상은 혼란스럽고 힘들다. 그리고 누구든 현실의 삶은 고달프고 팍팍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거는 즐거움을 위해 존재한다”는 디즈레일리의 말처럼,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미래의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회상될 가족 여행의 기회를 가졌으면 어떨까 한다. 힘들 때 마다 가족끼리 도란도란 정겹게 얘기를 나누면서 꺼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속 추억의 앨범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환영합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김기춘 책임론

김사 김기춘의 첫 발령지는 1964년 광주지검이었다. 거제 출신인 그가 첫 발령지로 광주를 선택하게 된 것은 변호사인 장인의 로비였다는 설이 있지만 정작 본인은 대학 동기 동창인 지금의 부인에게 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애처가로 소문이 난 그는 하지만 ‘정치 검사’로 불릴 정도로 출세 지향적이었다. 심재륜 전 검사장은 회고록에서 “김 전 실장은 검사 시절부터 법무부장관의 눈에 보이려고 장관 집 앞 언덕을 올랐다”고 썼다.

김기춘이 ‘기춘대원군’ 또는 ‘왕실장’이라 불리며 50년 가까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고비 고비마다 보여 준 이런 정치 검사의 면모 때문이다.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어 박정희 대통령 눈에 들더니 1975년 육영사 여사 저격 피살 사건 때는 문제관 수사 팀에 합류해 자백을 받아 내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

김기춘은 2005년 라디오 인터뷰에서 “목비권을 행사하던 문세광의 입을 자신이 열었다”고 주장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 당시 언론을 보면 수사 팀이 이미 진술을 많이 확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김기춘은 이 사

건을 해결한 주역으로 인정받아 40년 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의원 신분으로 직접 탄핵 심판을 청구했고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때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각본을 썼다.

김기춘이 최순실 국정 농단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그의 소개로 최 씨를 알게 됐다는 김충전 문체부 2차관의 진술에 이어 40년 전부터 최 씨 일가를 돌봐 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민심은 대통령 퇴진 못지않게 보좌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 책임은 왕실장을 지낸 김기춘일 것이다.

/ 장필수 정치부 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사회 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FAX 227-9600)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